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가정환경 탐색* -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김진경**

Infant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and Their Family Environment
Focused on Employment Status

Kim, Jin Kyung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환경의 제반여건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양육환경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남편의 양육협조를 받지 못했다. 또한, 어머니의 개인변인에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편인 반면, 비취업모는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아버지 개인 변인에서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아내가 취업한 경우에 높았다. 아동변인에서는, 비취업모가 자신의 자녀가 좀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까다로운 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가 발달 상태에 있어서는 정상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으며, 남편의 양육협조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아기 가정의 가정환경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비교·모색하였고, 어떤 변수들이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주제어 : 가정환경, 양육협조, 결혼만족도, 자기효능감, 우울감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제 1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E-mail : holyjin@knou.ac.kr)

I. 서론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교육 및 주거비용 등 가계지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된 이후 많은 여성들이 직장인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통계청(2014)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84.5%로 압도적이었다. 또한 여성이 ‘가정 일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8년 29.0%에서 2013년 5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 전까지’, ‘자녀 출산 전까지’, ‘자녀 성장 후’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출산·육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30대 후반에 재진입하는 M자형 모형이다. 6세 미만 자녀의 유무, 기혼 여성의 연령, 가구소득 등이 중요한 변수로 기혼 여성취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6세 미만 자녀의 양육부담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당히 커서 17.5% 정도의 취업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재열, 1996).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육아기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주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이인생계부양자·이인양육자 모델로 변화하는데 요구되는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남편들이 이인생계부양자 모델은 수용하면서, 이인양육자모델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은 가중되고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점차 성역할의 유동성과 가변성이 요구되고, 부부간의 역할공유나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의 남성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취업모인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노동 및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역할 과부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Ross & Mirowsky, 1988). 특히, 자녀출산으로 부부 중심에서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부모전환기에, 여성은 다역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육아 및 가사노동 부담의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조흥식 외 2006). 더욱이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며 어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는 생애주기상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핵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변화되면서 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축소되어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있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져서 그 어느 때보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많은 영유아기 아동들이 부모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면서,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 및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 가구 패널 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 사용한 Ermisch와 Francesconi(2002)는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감소시킴을 가정하면서 아동이 0~5세였을 때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이 아동의 교육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이 역할갈등이나 우울 뿐 아니라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Abidin, 1992; Spurlock, 1995). 부부간의 갈등이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는 영아기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양육환경, 어머니와 아버지 개인적 변인, 아동변인으로 구분하여 모색하였다. 양육환경 변인으로는 양육실제,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협조, 아버지(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사회적 지원, 대리양육여부 등을 포함시켜서, 전반적인 가정의 양육환경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또한, 부모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자녀에 대한 가치 및 기대 등 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 아동변인으로는 영아의 기질과 발달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가정환경이 어떻게 다른 역학 구도를 보이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여성의 취업상태가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및 여성의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Hashimi, Khurshid, & Hassan, 2007). Harisch(2008)는 독일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을 바탕으로 독일 사회에서 부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서구의 연구들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양육시간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양자의 차이도 직접적인 돌봄 시간보다 간접적인 돌봄 노동 시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취업모는 자기 자신의 여가 시간을 줄임으로써, 취업의 부정적인 시간 효과를 상쇄한다는 연구도 있다. 호주의 취업모는 잠이나 TV 시청 시간을 줄여서 부족한 자녀 돌봄 시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 2007). 또한,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우울정도가 더 높거나(Hashimi, Khurshid, & Hassan, 2007),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윤지원, 황라일, 조현하, 2009). 이렇듯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단순히 아동의 발달 및 부부관계 등에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 안의 역학구조, 그 외의 사회적 지원 등 좀 더 광범위한 맥락 안에서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한편, 여성이 가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가사와 자녀양육과 직장의 모든 역할로부터 오는 역할긴장을 잘 해결하며, 결혼에 대해 만족할 때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정창우, 2007). 결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을 누릴 때 가족의 기능인 자녀출산과 양육의 기능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자녀양육기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의 부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시간의 경감과 유연근무도 필요하다. 자녀양육기의 여성의 직장근무 시간과 환경이 좀 더 유연한 체제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공선희, 2009). 자녀를 돌보는 일은 부모로 하여금 대단치 않은 일상적인 따분함, 당황, 짜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출산·육아기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정상적인 생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역할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비취업모 역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부의 활동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일상적

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이 적다고 느끼며 가사일에 따른 끊임없는 육체적 노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욕구불만과 좌절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출생과 양육이 이뤄지는 부모전환기에 부모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시점이 될 수 있다. 그간 부모기를 경험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취업 여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환경의 제반여건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결국 어떤 요인들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아기 가정환경 역학구도를 모색함으로써, 가족특성이나 요구에 적절한 맞춤형 육아지원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양육환경, 부모, 아동 변인)은 차이가 있는가?

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양육실제,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협조,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사회적 지원, 대리양육여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변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 및 기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변인(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 및 기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1.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모집단은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2,078명의 신생아 가구로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도에 조사한 3차년도 조사 중 취업모 585명, 비취업모 11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한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는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이하 CAPI) 방식으로 조사 대상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주 양육자에 해당하는 어머니 외의 다른 성인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으나, 대상 아동과 동일 가구 거주자이더라도 비혈연 관계(예: 유급 비혈연 육아 도우미 등)인 가구원은 응답자에서 제외되었다. 우편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 발송한 후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위해 각 가구를 방문할 때 취합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1979, 1989)의 생태학이론과 Elder(1998)의 생애이론을 이론적인 틀로 삼아, 발달하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환경 변인, 부모(아버지, 어머니) 변인, 아동변인으로 구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조사내용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자료를 근거로 양육환경변인, 부모변인, 아동변인을 ‘가정변인’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표 1>참조).

<표 1> ‘가정환경’ 변인

변인	변수	변수내용
양육환경변인	양육실제(부인)	6문항
	양육스트레스(부인)	10문항
	남편의 양육협조	4문항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관식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관식
	사회적 지원	12문항
	대리양육여부	함/하지 않음
부모 (어머니, 아버지) 개인 변인	자아존중감**	10문항
	부적인 자기효능감*	4문항
	우울감*	6문항
	부부갈등	8문항
	결혼만족도	4문항
	자녀에 대한 가치(정서적, 도구적)	3/4문항
아동변인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돈, 지위, 타인도움, 행복한 가정)	각 1문항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5/5/10문항
	발달	정상발달/의심스런발달

또,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를 결혼만족도로 하며, 독립변수를 다음 <표 2>와 같이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 어머니만 조사한 변수

<표 2> 독립변수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적 지원, 대리양육여부, 월평균 소득(종합), 가구 총지출, 남편연령, 남편최종학력, 부인연령, 부인최종학력
(2) 부모 변인	남편	부부갈등, 일주일 총 근로시간, 양육협조,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주중, 주말), 남편의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
	부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부부갈등, 양육실제, 양육스트레스,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주중, 주말), 자녀에 대한 가치
(3) 아동 변인		기질(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발달(정상, 의심)
(4) 직장 변인	취업모	어머니 일자리 만족도, 주당 일자리 총 근로시간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t-검증과 카이스퀘어를 이용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영아기 자녀 가정의 환경 분석

1) 영아기 자녀 가정의 양육환경 분석

<표 3>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80)

변인		취업모	미취업모	t
		M(SD)	M(SD)	
양육환경	양육실제(부인)	34.11(4.61)	34.12(4.60)	-.04
	양육스트레스(부인)	29.73(6.65)	31.18(6.99)	-4.22***
	남편의 양육협조	15.22(3.38)	14.70(3.36)	3.05**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중	17.43	34.40	-17.66***
	주말	15.02	15.02	-.01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중	6.94(7.10)	6.84(6.38)	.28
	주말	8.83(5.85)	7.72(5.91)	3.77***
	사회적 지원	46.61(7.76)	46.19(7.50)	1.07
		n(%)	n(%)	χ^2
대리양육여부		534(89)	423(35.4)	461.82***

** p<.01, *** p<.00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협조,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중),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말), 대리양육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주중에 더 많았다.

반면, 남편의 양육협조는 취업모일 경우가 비취업모일 때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주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리양육여부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인 경우, 부모가 아닌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

2) 영아기 자녀 가정의 어머니 변인 분석

(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분석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4>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80)

	취업모 <i>M(SD)</i>	비취업모 <i>M(SD)</i>	<i>t</i>
자아존중감	30.61(3.98)	29.44(4.10)	5.78***
부적인 자기효능감	9.23(2.82)	9.30(2.90)	-0.50
우울감	11.49(4.15)	12.01(4.22)	-2.47*
부부갈등(부인)	16.92(6.17)	16.59(6.15)	1.05
결혼만족도(부인)	15.36(3.22)	15.39(3.01)	-0.18

* $p < .05$, *** $p < .001$

(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해 본 결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 비취업모가 조금씩 점수가 높았다. 한편,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있어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남을 기꺼이 도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높은 사회적 지위’, ‘남을 기꺼이 도움’ 항목에서 비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기대수준이 더 높았다.

<표 5>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80)

		취업모	미취업모	<i>t</i>
		<i>M(SD)</i>	<i>M(SD)</i>	
자녀에 대한 가치	정서적 가치	12.85(1.76)	12.88(1.72)	-0.31
	도구적 가치	11.53(3.09)	11.70(3.02)	-1.09
		<i>n(%)</i>	<i>n(%)</i>	<i>χ²</i>
	돈	542(92.8)	1084(91.9)	1.50
자녀의 미래에	높은 사회적 지위	406(69.1)	745(63.1)	5.85*
대해 갖는 기대	남을 기꺼이 도움	543(93)	1041(88.2)	10.15**
	행복한 가정	583(99.7)	1171(99.2)	1.52

* $p < .05$, ** $p < .01$

3) 영아기 자녀 가정의 아버지 변인 분석

(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심리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27)

		취업모	미취업모	<i>t</i>
		<i>M(SD)</i>	<i>M(SD)</i>	
	부부갈등(남편)	17.20(6.22)	16.30(5.79)	2.80**
	결혼만족도(남편)	16.74(2.89)	16.85(2.89)	-0.71

** $p < .01$

(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자녀에 대한 가치 중 정서적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더 높았다. 정서적 가치에 대한 항목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이다.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남편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두는 경향을 보였다.

<표7>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27)

		취업모	미취업모	t
		M(SD)	M(SD)	
자녀에 대한 가치	정서적 가치	13.21(1.72)	13.39(1.68)	-1.98*
	도구적 가치	13.19(3.12)	13.38(3.10)	-1.16
		n(%)	n(%)	χ^2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돈	484(87.2)	997(88.5)	1.10
	높은 사회적 지위	371(67)	730(64.9)	.83
행복한 가정	남을 가까이 도움	508(91.4)	1005(89.4)	2.03
		549(98.7)	1115(98.9)	.172

* $p < .05$

4) 영아기 자녀 가정의 아동 변인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변인을 분석한 결과, 기질 중 정서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가 지각한 아동의 정서성보다 미취업모가 지각한 아동의 정서성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미취업모 경우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와 미취업간 아동의 발달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경우, 정상 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미취업모에 비해 더 높았다.

<표8>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변인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80)

		취업모	미취업모	t
		M(SD)	M(SD)	
기질	정서성	14.00(3.00)	14.33(3.10)	-2.10*
	사회성	32.31(2.66)	32.53(2.57)	-1.61
	활동성	19.61(2.85)	19.47(3.00)	.99
		n(%)	n(%)	χ^2
발달 (Denver)	정상 발달	534(91.6)	1044(88.4)	4.83+
	의심스런 발달	49(8.4)	136(11.6)	

* $p < .05$, + $p < .1$

2. 영아기 자녀 가정의 모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모와 미취업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를 결혼만족도로 하며, 독립변수를 다음 <표 9>와 같이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회귀분석 모형의 VIF계수는 10이하로 나타났고, Dubin-Watson 계수 역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까워 회귀모형은 다중공선성의 위험없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1)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분석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부인), 남편의 양육협조, 결혼만족도(남편), 양육실제(부인)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양육실제가 긍정적일수록 부인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Beta	Beta	Beta	Beta
부부갈등(부인)	-.59 ^{***}	-.48 ^{***}	-.43 ^{***}	-.43 ^{***}
남편의 양육협조		.30 ^{***}	.28 ^{***}	.27 ^{***}
결혼만족도(남편)			.13 ^{***}	.12 ^{***}
양육실제(부인)				.06 [*]
<i>Adj R2</i>	.34	.42	.43	.44
$\Delta R2$.07	.01	.01
<i>F</i>	432.85 ^{***}	105.18 ^{***}	21.84 ^{***}	4.09 [*]

* $p < .05$, *** $p < .001$

2)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분석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부갈등(부인), 남편의 양육협조, 도구적 가치(부인), 결혼만족도(남편), 최종학력(부인)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부인이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변인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33.75% 설명하고, 비취업모의 경우 모든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33.62% 설명하고 있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이 변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비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변량과 비슷하여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직장관련 변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II
	Beta	Beta	Beta	Beta	
부부갈등(부인)	-.60 ^{***}	-.48 ^{***}	-.46 ^{***}	-.42 ^{***}	-.41 ^{***}
남편의 양육협조		.31 ^{***}	.31 ^{***}	.29 ^{***}	.30 ^{***}
도구적 가치(부인)			.14 ^{***}	.13 ^{**}	.14 ^{***}
결혼만족도(남편)				.13 ^{**}	.12 ^{**}
최종학력(부인)					.09 [*]
<i>Adj R2</i>	.36	.44	.46	.47	.47
$\Delta R2$.08	.02	.01	.00
<i>F</i>	195.78 ^{***}	51.41 ^{***}	12.78 ^{***}	8.94 ^{**}	4.98 [*]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환경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협조,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중),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말), 대리양육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는 대리양육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으며,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남편의 양육협조 수준이 낮았다.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전업주부인 경우, 자녀가 어린 영유아기일때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주말에 남편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취업모에 비해 적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자녀육아와 가사에 시달리며 가정 안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양육협조가 적어서 양육스트레스 상황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비교적 남편의 양육협조를 더 받으며,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양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지원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취업모의 남편이 주말에 자녀와 상호작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주말에 남편은 취업모에게 물리적, 심리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비취업모들은 주말에도 남편에게 육아도움을 받는데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남편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취업모는 주중에는 비취업모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육아와 가사의 일차적 책임자는 부인이며, 평일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현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직접적인 시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Craig,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1명이상의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 본 연구(유계숙, 2010)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평일에는 약 7배, 주말에도 역시 약 3배 정도 더 긴 시간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부인이 가사노동의 주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반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 및 경제적 자립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므로, 직장에서의 성취감이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취업모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주부로서의 활동에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고 자아실현 욕구와도 상충될 수 있다. 즉, 비취업모의 경우 가정에서 불만족을 느낄 경우 만족을 얻을 만한 다른 역할이 없다는 것, 자신이 비생산적이며 도구적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가시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오는 상대적 상실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 더욱 가중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항목에서 취업모인 경우, ‘높은 사회적 지위’, ‘남을 기꺼이 도움’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모들이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기제가 됨을 인식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이러한 항목이 키워지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을 기꺼이 도움’ 항목도 중요한 기대항목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취업모가 직장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며 남과 어울리는 항목을 중요시여기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 갈등 수준이 아내가 취업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기존의 연구(마경희, 2004; 손문금, 2005; 한주희, 2005) 결과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의 부부간 불균형한 가사분담이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을 높였을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수준이 유의하게 더욱 높았다. 남편이 자녀가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결속되도록 지지해주며 부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지닌다고 지각할수록, 아내가 취업하기 보다는 자녀를 돌봐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변인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가 자신의 자녀가 좀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까다로운 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대리 양육비율이 낮으며 많은 시간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자녀의 많은 요구에 맞추면서 자녀가 까다로우며 부정적인 정서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발달 상태에 있어서는 정상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취업모가 더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이 대체로 아동의 학업성취도, 자존감, 위축, 공격성 등의 아동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이상록, 2009)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상록, 2009; 정진화, 이경희, 2008; 최형재, 2008)에서는 어머니 취업의 긍정적 영향이 단순히 취업여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 근로소득 및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취업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어머니 취업여부만이 아니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물리적, 심리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취업모의 아동이 정상발달 범주에 더 많다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부인), 남편의 양육협조, 결혼만족도(남편), 양육실제(부인)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양육실제가 긍정적일수록 부인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적인 점은 취업모에 대한 분석과 비교했을 때, 비취업모의 양육실제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긍정적인 양육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이것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모에게는 양육실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실제적인 양육스킬을 가르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반면,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에 대한 분석과 비교해보면, 부인이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지닐수록, 또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인생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부여가 취업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고충을 극복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취업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직

일수록 직장에서 느끼는 보람으로 심리적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겠다.

한편,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남편의 양육협조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경신, 김오남, 1999; 김미령,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남편의 양육협조는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부부간의 적절한 지지는 결혼만족에 중요한 요소로, 부부관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열정적인 관계보다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성들은 남편의 이해나 배려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누리며, 남편의 지지에 대한 지각은 부인의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유계숙, 김수향, 오아림, 이주현, 2011; 조숙, 정혜정, 이주연, 2015; Anderson, & Sabatelli, 2003; Christopher, Umemura, Mann, Jacobvitz, & Hazen, 2015; Roger, Sylvia, & Cloe, 2015).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의 이중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낮추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 부족한 시간에 대한 협조와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는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시간을 살펴본 연구에서, 남성은 일주일에 114분으로 두 시간이 안되며, 여성은 921분으로 약 15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령, 2009). 이러한 양적인 시간차이는 아직도 양육과 가사에 있어서 여성이 주책임자이며, 남성은 도움을 주는 정도로 미약한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 부부갈등을 줄이고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협조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데,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양육참여도가 높다는 선행연구(Vannoy-Hiller, & Philliber, 1992)와 맥을 같이 한다.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이 때문이다.

또한,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 자체보다는 부인의 교육수준과 이에 따른 직업지위 및 직업 환경이 부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들(구인희, 2003; 이종섭, 이용교, 2009;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4)과 일치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직장생활 영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보상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직접지위가 전문직인 경우,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채로, 이기영, 2004)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취업여성인 경우, 만족도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일과 가정의 만족도는 분리되지 않으며, 만족도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직접지위가 여성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취업으로 인해 일-가족 양립의 갈등을 경험하지 만 직업지위에서 삶의 보람을 느껴 노동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구에서는 기혼 취업여성과 자녀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축적된 반면, 국내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기혼 여성 집단은 잠재적 노동력 풀로 주목받고 있지만, 어머니의 역할변화와 취업증대가 자녀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미치는지에 대한 조망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양육과 돌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어머니의 역할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향상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활동 참여를 높이며, 긍정적인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해줄 때, 여성의 자존감이 증진되고 속박감이 완화될 것이다. 또한 가사 및 육아에 배우자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다중역할로 인한 부담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환경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이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 부모역할을 다르며, 가정 내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발달시기에 따른 가정환경 비교탐색이 요구된다. 또한 영아기 내에서도 월령별 대리양육 여부와 어머니의 출산휴가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하여 각 월령에 따른 가정환경 분석을 통해, 적절한 육아지원정책 모색에 기여하는 작업 또한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마경희 (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영향요인과 부부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119-144.
- 손문금 (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277-311.
- 유계숙 (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 유계숙, 강수향, 오아림, 이주현 (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윤지원, 황라일, 조현하 (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이재열 (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 5-44.
- 정진화, 이경희 (2008). 기혼여성의 취업과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에 대한 시간투자. **노동경제논집**, 31(1), 135-162.
- 조숙, 정혜정, 이주연 (201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25-49.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2006).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채로, 이기영 (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최형재 (2008).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국제경제연구**, 577-597.
-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 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4, 57-84.
- 통계청 (2014). 사회조사보고서.
- 한주희 (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Clinic Child Adolescent Psychology*, 21(4), 401-412.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2003).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Boston, Mass: Pearson Education Co.
-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oca, D., & Wetzels, C. (2007). Social policies, labour markets & motherhood: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counties. *Economic Issues-Stoke on Trent-*, 14(1), 100-10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 Christopher, C., Umemura, T., Mann, T., Jacobvitz, D., & Hazen, N. (2015). Marital quality over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s a Predictor of coparent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1007/s10826-015-0172-0
- Craig, L., & Bittman, M. (2008). The incremental time costs of children: An analysis of children's impact on adult time-Use in Australia. *Feminist Economics*, 14(2), 57-85.
- Elder, G. H. (1998).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1, pp. 939-991). New York: Wiley.
- Elder, G. H., & Shanahan, M. J. (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 Dam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6th ed., pp. 313-399). New York: Wiley.
- Ermisch, J. F., & Francesconi, M. (2002).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achievements.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Achievements*, 14(2), 249-270.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322-335.
- Hashmi, H. A., Khurshid, L., & Hassan, I. (2007). Marital adjustment, stress and depression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women. *Internet Journal Med Update*, 2(1), 1-11.
- Harish, H. (2008). Dose parental employment affect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Germany. Discussion Paper 2008-05,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unich.
- Kwan, R. W. H., Kwok, S. Y. C. L., & Ling, C. C. Y. (2015). The moderating roles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co-parenting alliance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 772-783.
- Ross, C. E., & Mirowsky, J. (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 Sayer, L. C.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 285-304.

Spurlock, J. (1995). Multiple roles of women and role strains. *Health Care Women International*, 16, 501-508.

Vannoy, D., & Philliber, W. P. (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87-398.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on family environment and physical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the main concern of this which factors ha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s of either employed or non-employed mothers. First, the result of analysis on family environment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shows non-employed mother's parental stress is higher than employed mother's. Besides, non-employed mother's self-esteem is lower than employed mother's, and non-employed mother's depression is significantly high. Concerning fathers' factors, the level of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is higher among husbands when their wives are employed. In the light of childrens' factors, non-employed mothers consider that their children display more negative emotion and more picky. Children's development of employed mothers is included in normal development range more than that of non-employed mothers. Second, conflict between husbands and wives have an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regardless wife's employment status. Husbands' cooperation in child-rearing and marital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wives' marital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factor which influences on employe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is education level of wives.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in that infancy home environment was compared focusing on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some factors which factors(variables) have impacts on marital satisfaction of infancy mothers were examined.

▶*Key Words* : *family environment, parenting participation, marital satisfaction, self-efficacy, depression*

논문투고 2015. 05. 22.
수정원고접수 2015. 06. 21.
최종게재결정 2015. 07. 25.